

주제 : 나무와 인간관계



주제발표하는 필자

## 黃金比의 극치 李朝家具

배 만 실  
이화여대 교수

지난 6월 1일, 日本디자인學會가 주최하는 1985년 제 6회 春季大會에 참가한 일이 있다. 이 회의 기본테마는 “〈나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이었고 본인은 國際學 交流部(International Correspondence) 대표로서 「이조가구의 意匠과 문화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바 있다.

서구는 「石의 문화」이고 日本은 「木의 문화」로서 특징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이 20세기 중기부터 급속하게 생활의 서구화로 〈나무〉가 점점 생활영역에서 사라져감을 아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

은 이번 會의 테마에 〈나무〉의 요소를 넣게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의 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었다.

즉, 日本은 나무의 문화로서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傳統과 造型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해야하고 그 전통적 미의식을 찾아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무는 수공예나 기계기술에 의해 생활공예품에서 예술품까지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과정은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기술이 있었겠고 이를 찾기위한 조사와 보존 내지 현재의 木工生産의 재할 및 선단기술에 의한 새로운 나무의

조형을 개발해 보자는데 이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일은 日本나무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생산기술을 해외에 알리기도하고 나무기술문화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역사적 연구를 하다 보니 일본가구 즉 단스(簞笥)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李朝시대의 목공가구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말하고 있었다.

이조목공이 가진 直線을 주체로한 조형과 억제된 아름다움, 적당한 기능성을 겸비한 가구가 日本에 도입되어 日本의 材料, 工法내지 미의식을 통해 섬세한 조형의 단스로서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大會長 鍵和田務 氏의 말)

일본의 공예학자 柳完悅 氏는 한국 목기미에 대하여 “글로도 표현키 어렵고 말로서도 할수 없는 인간척도로서 잘 제어지지 않는 미”라고 표현한바 있다.

실로 한국가구미의 표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유출된 자연감각의 조형미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컸던 유교적 사상에서 儉素質外한 형태미를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강직한 직선의 단순미는 20세기 현대 건축과 실내에도 조화와 통일미를 주며 많은 국외인들에게도 극찬을 받고 있으며 수공예적인 소박미는 非整齊性을 특색으로한 鈍厚美와 더불어 鄉愁愛에 넘치는 民藝의 친근감을 다분히 나타내고 있다.

이조시대의 양반들은 고려시대의 귀족처럼 섬세한 미적감각이나 미에 대한 욕구가 없었으며 미에 대해서 오히려 담담하였기 때문에 서민층의 순수한 천생적 미의식을 그들 나름대로 구현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사용자나 제작자사이에 소충된 솔직한 표현으로 한개의 나무토막이 가지는 자연미와도 같이 사람의 손을 빌린 造型 이전의 美, 즉 평범하고 소박한 單純美의 경지

에 다달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꾸밈새 역시 당대 崇儒政策에 의한 内外法에 의해 성별이 구분되면서 검소를 기틀로한 界性空間에는 禮를 논하는 선비위주의 文房家具가 많았고 폐쇄적인 女性空間에는 재료에 따라 채색이 약간 덧붙일 정도로 담백하였다.

대부분 원목의 木理가 배경을 이뤘던 까닭에 가구장식으로는 金具裝飾이 주된 역할을 하였는데 연대가 오랜 것일수록 무쇠를 썼으며 수량이 적었고 중기에는 놋쇠, 후기에는 백동장식이 출현하면서 수도 늘었으나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金具의 부착기능이 장식적인 것도 있었지만 보강역할도 겸한 것이 특징중의 하나다. 이러한 金具장식은 자연 형태의 문양이 많았는데 당대 불안했던 사회상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정신적 염원이 紋樣化된 것이 많다. 즉 十長生, 長壽紋이 주가되며 四君子와 같이 고고한 선비들의 기상을 나타낸 것도 있다.

조형미중에 또하나 생각해 볼 것은 가구 형태의 比例美다. 方形과 長方形의 반복이 前面構成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추구하여 좀더 분석적인 미의 해답을 얻고져 약 400여종의 가구에서 全体輪廓比를 찾아내고, 문짝, 서랍, 쥐벽칸, 머름칸등의 部分輪廓比에서 실측을 통한 수치를 산출해 보았다. 물론 가구의 개개 형태 뿐만 아니라 종류별, 가구간의 횡적, 종적관계 및 실용상의 기능과 실내공간과의 유기적 상황 등도 참작한 것이다.

결과, 美學上 가장 조화되고 균형미가 아름다운 黃金比(1 : 1.618)가 최고의 빈도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들이 과거 黃金比에 대한 지식은 없었겠지만 타고난 미적성품과 체험을 통하여 동서고금에 상통되는 面分割의 比例美를 체득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당시(英祖1725-1776) 서구문물의 전래, 實學思想으로 인한 자아확립, 과학, 예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상 전환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그 시대의 獨自性이고도 實際的인 미의식이 바로 조화된 문화를 갖춘 이조시대 후기의 사회를 이룩하였을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조시대는 지세가 구릉이 많고 지질은 화강석이 흔하며 植生學的으로 소나무가 盛했다. 그리하여 木造架構式構造의 單式住宅樣式이 주가 되며 가구도 따라서 소나무材를 많이 썼다. 소나무 외에 여러종류의 잡목도 즐겨 썼는데 이러한 잡목의 자연소재가 좋게보면 순박한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나쁘게 말하면 재료의 표출이 조잡하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樹種은 1000여종에 달하지만 그중 家具材로는 30여종이며, 가장 많이 쓰인것이 松, 梧桐, 烏柳木, 栗木, 皮木, 槐木, 檜木, 楸木, 檜, 杏子木, 丹楓 등이다. 이러한 수종의 원목을 柾目 혹은 板目으로 절단하여 자연문리를 잘 살려 가구를 만든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自然質感과 自然色을 보존키위해 도장은 되도록 식물성油質을 택했고 색채는 태운 나무의 재(灰)나 소피(牛血)를 발라 그 위에 투명된 식물기름 혹은 生漆, 熟漆을 하여 길을 드렸다. 대개 朱漆은 王室用, 黑漆은 중류이상에서 사용하였고 민가에서는 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면 기능과 조형미를 겸한 가구가 많고 收納空間과 裝飾空間을 적절하게 구성시킨 점과 장식과 보강을 모호하게 나타낸것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가구 특유의 이음과 짜임, 붙임 등의 結構法을 사용하면서 못(釘)을 쓰지않은 것이 또한 독특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가구는 의장, 재료, 기술 등의 삼면에서 그 특유한 전통양식과 美의식을 표현한 조형미를 형성해왔다. 이에 비해 日本古家具는 아직까지 거의 전통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된다.

동양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모든 문화예술이 한국, 중국, 일본등에 서로 유사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불교의 통일시대를 거쳐 분리시대에 들어오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보여준 것 같다.

나무의 造型을 통한 국제교류의 의의는 외국의 근대 목공기술 도입도 중하지만 각기 그나라 특유한 傳統技術과 첨단 기술과의 관계 등을 좀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많이 연구됨이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간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서 나무가 가지고있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삼림전문학자가 학설로 보고한 바 있다고 한다.

〈나무〉와 인간관계, 〈나무〉와 생활환경관계, 〈나무〉와 조형문화의 문제등 우리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냉정하기만한 차거운 재료와 기능적인 생활환경에 묻혀있어 따뜻한 정감이 흐르는 풍부한 생활의욕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푸근하고 푸른 잎이 우거진 가로수밑을 걷다보면 시각적으로도 정신적 휴식을 얻을 수 있듯이 나무란 인간에게 무궁한 생명감을 주는 것 같다.

6월의 동경시내는 높은 빌딩을 둘러싼 푸른 나무가 매우 울창하게 보였다. 大會場은 이러한 숲길 어느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京王프라자호텔 에미민스홀에서 였고 1,200명의 디자인 학회 멤버를 가진 비교적 큰 학회로서 강연, 심포지움 그리고 〈나무와 人間관계〉展示가 다른棟에서 크게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 의미깊은 일은 한국가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하여 회원중 강의가 끝난 후 줄을 지어 질문하여 답변에 고충이 컸던 일이 기억된다. 이국인들의 이와같은 관심도를 보고 세계분야의 우리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함을 절실하게 느꼈다.